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채침의 "서경집전"에 "북극(北極)은 지상으로 나온 것이 36도(度)이고, 남극(南極)은 지하로 들어간 것이 또한 36도이다. 높은 곳이 바로 하늘의 중앙에 해당하는데, 북극의 남쪽(極南) 55도가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한다. 또 그 남쪽 12도는 하지 때의 해가 다니는 길(日道)이며, 또 그 남쪽 24도는 춘분과 추분의 해가 다니는 길이고, 또 그 남쪽 24도는 동지의 해가 아니는 길이다. 남쪽 아래로 땅과 31도 떨어져 있을 뿐이니, 이는 하짓날이다."라고 하였다.

하짓날은 해가 땅과의 거리가 가장 멀고, 동짓날에는 그 거리가 가장 가깝다. 해와 가까우면 덥기 마련이거늘 겨울에 춥고, 해가 멀면 춥기 마련이거늘 여름에 더운 것은, 하늘이 땅을 밖으로 둘러싸고, 땅이 하늘 가운데에 떠 있어서, 사방 상하에 그 허공의 멀기가 고르기 때문이다.

해의 운행은 항상 지상의 남쪽에 있다. 그러므로 겨울과 여름의 해그림자는 항상 북쪽에 있다. 하짓날은 북쪽으로 천중(天中)에 접근하니, 이는 땅 위에서 가장 가깝다, 동짓날은 남쪽으로 접근하니 가장 멀다.

이른바 동짓날 해가 땅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한 것은 먼데서 비스듬히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는 것은 멀면 비스듬하면서 낮고, 가까우면 우러러 보게 되어 높다. 이것이 하짓날(夏至) 해가 땅과 가까워서 높게 보이고, 동짓날 해가 땅과 멀어서 낮게 보이는 것이다.

스님들이 말하기를, "해와 달이 수미산(須彌山) 꼭대기를 운행하며, 사람은 그 산의 남쪽에 있다고"고 하였는데, 이는 해가 북쪽에 있으면 산과 가깝고 땅과 멀어지니, 마땅히 해는 짧고 추운 것이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동짓날(冬至)에 해가 남쪽에 낮게 떠 있으면 산과 멀고 땅과는 가까우니, 해는 길고 더운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잘못되고 망령됨을 알 수 있다. "집소록(輯所錄)"에서 이르기를,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모두 숭산(崇山)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정론(定論)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8

<순전(舜典)은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다섯 가지 서옥(瑞玉)과 세 가지 폐백과 두 가지 생물(生物)과 한 가지 죽은 예물"의 구절은 죽간(竹簡)이 엇갈린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은 죽간이 착란(錯亂)·마멸(磨滅)된 나머지를 가지고 고문(古文)을 예서(隷書)로 옮겼으나 간혹 착오가 있었다.

복생(伏生)도 글을 안 보고 암송을 하였으니 역시 순서를 잘못하였다.

어째서인가? 이는 반드시 공자가 '서경'을 산삭하기 이전에 이미 착란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공자는 이를 바로 잡지 않았는가? 이는 공자가 말한 "오히려 사관이 의심나는 것을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예컨대 "춘추"에서 갑술(甲戌) 기축(己丑)의 진후포(陳候鮑)같은 종류이며, 아랫글의 기왈(夔曰)한 구절도 역시 그러하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별고 〈35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1)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선조(宣祖) 25년(1592년) 4월에 왜군(倭軍 ; 일본군) 20만 5천명이 부산포로 침공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정유재란 등 7년간의 전란을 겪은 1598년 11월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陳璘) 제독의 노량해전 연합작전으로 왜적을 크게 무찔러 격퇴시킨 것을 끝으로 5-6년간이 지난 후, 1600년 9월 명나라 군사의 철수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자 선조 37년(1604 갑진) 6월 25일(갑진)에 국란극복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공신을 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실록"175권, 7번째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공신(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봉(封)했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始終) 거가(車駕)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는데, 정승과 대신을 비롯하여 왕자, 종친 등 모두 이항복(李恒福)을 위시하여 모두 86인데 내시(內侍)가 24명, 이마(理馬)가 6명, 의관이 2명이고, 별좌(別坐)와 사알(司謁)이 또 2명이었다.

왜적을 친 제장(諸將)과 군사와 양곡을 주청(奏請)한 사신(使臣)들은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 세 대장인데,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이억기(李億祺)인데,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인데, 효충장의선무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이라 하였다.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는데 모두 18인이다.

1597년 7월에 충청도 홍산(鴻山 ; 현재 부여군 홍산면 일대)에서 일어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토벌하여 평정한 사람은 청난공신(淸難功臣)으로 홍가신(洪可臣) 등 모두 5인이었다.

이러한 공신들 가운데 직접 왜적을 쳐서 국란을 극복한 선무공신 18인 가운데, 그 1등 공신에 가운데 권율(權慄), 2등 공신에 권응수(權應銖) 3등 공신에 권협(權悏)·권준(權俊) 4인이 안동 권문에서 나왔다.

충장공 권율 도원수는 1990년대 말에 1년간에 이어 2000년대 말에 2년간 2차례에 걸쳐 본 종보에 연재하였고, 충정공 충재 권벌 선생을 2010-2012년 3년간 연재를 지난 12월에 끝마치고, 충의공(忠毅公) 화산군(花山君) 권응수 장군을 연재하게 되었다.

인터넷에도 '조선시대 무신이었던 권응수(1546~1608) 장군이 쓰던 물건 및 선조 임금에게 하사받은 물건과 집안에 내려오던 유품들 가운데 하나로 공신에 봉한다는 공신도감의 증명서이다. 권응수 장군은 선조 17년(1584)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많은 활약을 하였다.

선조 37년(1604) 10월에 하사된 선무공신교서(宣武功臣敎書)는 1980.08.23에 국가보물(668-2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하며 전시되고 있다.' 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 충의공 권응수 장군이 선무공신과 화산군에 봉해지기 1년 5개월 전인 선조 36년(1603) 정월에 58세로서 황해도 병마수군절도사(종2품)로 제수되었으나, 병이 있다고 힘써 사직하니 동지중추부사(종2품)로 이배(移拜)되었고 3월에는 무장 출신으로서 특이하게 경연(經筵)에도 입시하였다. 그리고 4개월 전인 그 해 2월에는 59세로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종2품)이 제수되었다.

또한 선무공신의 호를 하사 받을 때 "심경心經"과 "춘추좌전春秋左傳"을 하사 받았고, 7월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로 품계가 승차하여 소명을 받고 조정에 돌아가 오위도총부 도총관(都摠管;정2품)을 겸직하였다.

9월에는 인각(麟閣 ; 충훈부忠勳府의 별칭)에 화상(畵像) 그려져 걸렸다. 인각은 공신들의 영정을 걸어 모시는 전각인데 선조 임금이 공의 화상을 보고 용모를 경이롭게 생각하여 이르기를 "권응수의 생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가?"하고는 곧 공을 불러서 보고 조우를 둘러보며 가로되 "그림 속의 모습과 아주 똑같도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古 訓 新 鑑

▣ 입암서원유사 권 태 수

第二章 省心

黃金千兩이 未爲貴요 得人一語가 勝千金이니라

〈明心寶鑑〉

황금 천 냥이 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解說]

황금이 천 냥이나 된다면 큰 보물이요 재산이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귀중한 것은 정신적인 인간성이다. 그러면 인간성과 인격은 무엇으로 도야(陶冶)해야 하는가? 성현이나 위인들의 인생체험에서 우러나온 귀중한 말을 듣고 배워 마음을 닦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성현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들어 깨닫는 것이 천금의 재산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例話]

조선 24대왕 헌종(憲宗) 때, 판서 홍기섭은 젊었을 때 몹시 가난하였다.

어느 날 홍기섭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집을 뒤졌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거참 지독하게 가난한 집도 있군. 보리쌀 한 톨도 없다니…."

도둑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얼어보니 밥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솥이 녹이 낄 정도였다.

도둑은 이집 식구들이 너무 불쌍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열 냥을 도로 솥 안에 넣어주고 나왔다.

이튿날 기섭의 아내가 이웃에 식량을 조금 빌려서 죽이라도 끓일 요량으로 솥뚜껑을 여니 돈이 들어있어 깜짝 놀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남편에게 갔다.

"이건 필시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입니다. 어서 쌀을 사서 밥을 한번 해 먹어 봅시다."

그러나 기섭은 어림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무슨 소리요? 누가 잠시 우리 집 솥에 넣어두었을 뿐이요. 그 돈은 분명히 우리 돈이 아니니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오."

기섭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라는 쪽지를 써서 집 밖에 다 붙여 놓았다. 그걸 보고 이웃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가 솥 안에다 돈을 잃어버리고 간담."

도둑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 보니 과연 돈을 찾아가라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아! 이 선비는 벌써 며칠을 굶으면서도 자기의 돈이 아니라고 주인을 찾아 주려고 하는데 나는 몰래 도둑질을 하였으니…."

도둑은 곧장 기섭에게 달려가 꿇어 앉았다.

"용서하십시오. 그 돈은 제가…." 도둑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 일로 크게 감동한 도둑은 그날부터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는가 하면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기섭에게 찾아가 글공부를 하였다.

마침내 기섭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자리에 올랐으며 도둑도 기섭의 도움으로 글공부를 열시미하여 벼슬을 얻게 되었다.

기로회(耆老會)

기로회장 권 정 택

기로회(耆老會)는 당(唐)·송(宋) 시대로부터 있었고, 전조(고려) 때에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로소(耆老所)를 두어 연령이 70세이고 관작이 2품 이상이면 참여시켰다. 조종 조에서는 의례 3월 3일과 9월 9일에 훈련원이나 반송정(盤松亭)에서 기로소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때에는 기로소 안에 간직된 물건으로써 춘추에 잔치를 베풀 뿐이었다.을유년 모임에는 의정議政 권희權僖 의정(議政) 노수신(盧守愼)과 의정 정유길(鄭惟吉),판부사(判府事) 원혼(元混), 팔계군(八溪君) 정종영(鄭宗榮)과 지사(知事) 임열(任說)과 지사 강섬(姜暹)이 동료가 되었고, 그 후 판서 황임(黃琳), 판서 안자유(安自裕), 판서 이인, 영부사 김귀영(金貴榮)이 또 동료가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제공(諸公)들이 서로 이어서 작고하고, 오직 김귀영·강섬과 심수경만이 생존하여 인원수가 매우 적은 관계로 기로회를 하기 어려웠다. 조종 조에서는 종2품도 참여시킨 예가 있으므로 송찬(宋贊)·목첨(睦詹)·신담(申湛)·이기도 참여하였는데, 지금은 송찬이 지중추로 88세이고, 심수경은 영부사로 82세이며, 이기는 이조 판서로 76세인데 아직 병 없이 건강하다.임진난 후에는 폐지되어 기로회를 열지 못하다가, 의정 유홍(兪泓), 판서 이헌국(李憲國)·이증(李增), 참판 유희림(柳希霖)·이희득(李希得)·이관(李瓘)이 모두 참여하였으나 또한 기로회는 열지 못하였다.이헌국은 73세이며, 이증은 72세이고, 유희 림은 78세이며, 이희득은 76세로 모두 병 없이 건강하다. 정유년이었다.조정의 의정(議政)으로 70이 지나서 기로소에 참여한 이는 권희(權僖)·권중화(權仲和)·이서(李舒)·성석린·조준(趙浚)·하륜(河崙)·황희(黃喜)·허주(許稠)·하연(河演)·최윤덕(崔潤德)·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어세겸(魚世謙)·유순(柳洵)·정광필(鄭光弼)·이유청(李惟淸)·윤은보(尹殷輔)·유부(柳溥)·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이기·상진(尙震)·윤개(尹漑)·이명(李賞)·이준경(李浚慶)·권철(權轍)·홍섬·노수신·정유길·김귀영(金貴榮)과 심수경이다. 최항 이상은 기로소의 <선생안(先生案)>에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였으나, 다시 들으니, 최항의 나이는 70이 못 되었다 하고, 그 나머지도 자세하지 않다. 정승이 되면 비록 70이 못 되어도 으레 모두 연회에 참여하게 되니, 그가 연회에 참여한 까닭으로 <선생안>에 기록한 모양이다.

기로회(耆老會)와 기로소(耆老所)의 유래

1.고려 때 최당(崔黨) 등이 만든 집회. 신종(神宗).희종(熙宗) 때 문하시랑(門下侍郞)을 지낸 최당(崔黨)을 중심으로 최선(崔詵). 장백목(張白牧). 고영중(高瑩中). 백광신(白光臣). 이준창(李俊昌). 현덕수(玄德秀). 이세장(李世長).조통(趙通) 등이 소요자통《逍遙自通: 요산요수(樂山樂水)와 비슷한 말》 목적으로 만든 모임을 당시 사람들은 기로회를 보내고 지상선(地上仙 : 지상의 신선)들이라고 하였다. 2.고려 고종(高宗) 때 유자경(庾資경)이 퇴직한 재상들과 만든 불교교유단체(佛敎交遊團體)를 기로회(耆老會)라고도 한다.

◎ 기로소(耆老所)

기로소(耆老所) : 조선조 때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이 모여서 대우를 받던 곳. 태조 3년(1394)에 창설되고, 1400년(태종 즉위년)에 제도화되어 전함재 추소(前銜宰樞所)라 하던 것을 세종 10년(1428)에 기로소로 개칭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로소"에 대한 검색건수 국역 247건 원문 161건 총 408 건 국역 247건

1. 기로소의 내용은 첫 번째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4월 27일(경오) 3번째 기사전함 재추들이 휴가 내는 법을 세우다, 라고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다.

○立前銜宰樞告暇出入之法。吏曹啓: "前此前銜宰樞, 有累日門外出入之事, 則開具辭由, 告于政府。今後呈單子于承政院, 以爲式。" 從之。

<해설> 전함 재추(前銜宰樞)의 고가 출입(告暇出入)의 법을 세웠다. 이조(吏曹)에서 아뢰었다.

"이에 앞서 전함 재추(前銜宰樞)가 여러 날 성문(城門) 밖으로 출입할 일이 있으면 사유(辭由)를 일일이 갖추어 정부에 고(告)하였습니다. 금후로는 승정원(承政院)에 단자(單子)를 바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라고 기재 되어있다.

주(註)-전함 재추(前銜宰樞) : 2품 이상의 한량(閑良) 기로(耆老)를 말함. 태종 때 전함 재추소(前銜宰樞所)를 두었고, 세종 때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쳤음. 전함 양부(前銜兩府) 〈다음호에 계속〉

자연과 사람들 우리 (주)금송은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 금 송 조 경
㈜ 금 송 환 경
권정섭나무병원
www.gumsong.co.kr
代表理事 / 院長 權 正 燮

▲ 고사소나무 소생관리
▲ 고사수목 소생전문
▲ 고급조경수목(문화재급)이식공사
▲ 조경 컨설팅
▲ 아파트조경수목 년간 관리
▲ 고사수목 소생 비료-금비-수목에 모든것

서울사무소 TEL : (02)846-2922 안양사무소 TEL : (031)466-29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3-26(2층) H.P : 016-799-9455 FAX : 031)466-2923

-특허-
·고사수목소생제 제0527101호 ·수목용비료 제0537094호 ·수목용비료제조공법 제10-0582681호 ·살충제 및 그 제조방법 제10-0582684호 ·권정섭 나무병원 제41-0145323호 외 20여종

경인산악회 산행 안내(제160차)

■ 일 시 : 2013년 1월 19일(매월 3째 토요일) 오전 10시
■ 집결장소 : 1호선 도봉산역 (느티나무광장)
■ 등 산 지 : 도봉산
■ 등산코스 : 도봉산 둘레길

▲회장(영철) : 010-2020-3030, (혁찬):010-8249-2652
▲총무(권구승) : 010-9182-3648
▲등반대장(병일) : 010-7734-1747, (오흥):011-719-4048
▲사무실 : 서울 종로구 효제동 151번지(02)745-5335
※안동권씨 경기산악회와 근기요산회의 합병으로 안동권씨 경인산악회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월 1일

안동권씨경인산악회 회장 권영철, 권혁찬